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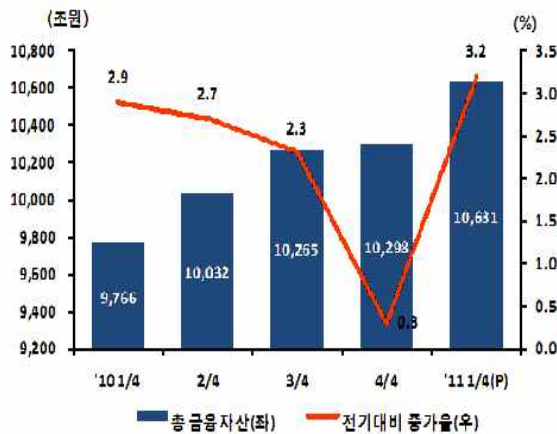


## 총 금융자산 및 개인 순금융자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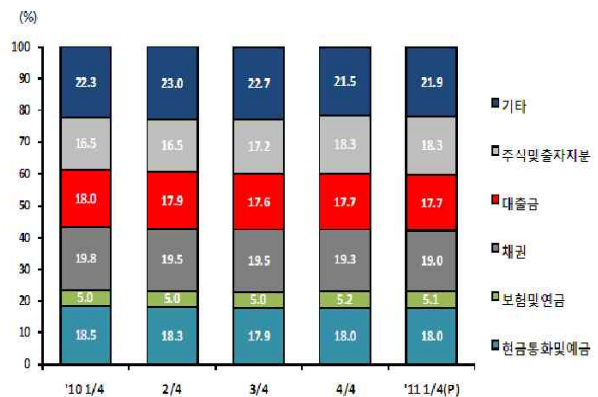
■ 한은에 따르면 2011년 1/4분기 개인, 기업, 금융회사, 정부를 포함한 국내 경제주체의 총 금융자산이 2010년 말 대비 3.2% 증가한 1경 630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.

- 현금통화 및 예금, 대출금, 주식 및 출자지분, 기타가 2010년 말 대비 각각 3.2%, 3.3%, 3.4%, 4.9% 증가하는 등 전 부문에 걸쳐 늘어남.
- 금융자산 구성비는 채권이 2010년 말 19.3%에서 2011년 1/4분기 19.0%로 소폭 감소한 반면, 기타의 비중이 21.5%에서 21.9%로 소폭 증가함.

〈그림 1〉 총 금융자산 및 증가율



〈그림 2〉 총 금융자산 구성비



주 : 기타에는 정부용자, 상거래신용, 직접투자, 기타금융자산이 포함됨.  
 자료 : 한국은행

■ 한편, 개인부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개선됨.

- 2011년 1/4분기 개인 금융자산(파생금융상품과 기타금융자산 제외)은 2,212조 4천억 원으로 2010년 말 대비 35조 9천억 원 증가함.

- 수익증권과 금융채가 전기대비 각각 16.5%, 4.2% 감소하여 채권이 6.5% 감소한 반면, 장기저축성예금이 3.2% 증가하여 현금 및 예금이 2.4% 증가하고 보험 및 연금도 2.2% 증가함.
- 개인부채(상거래신용 및 기타금융부채 제외)는 949조 원을 기록하여 2010년 말 대비 11조 7천 억 원 증가함.
  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취급기관대출금이 전기대비 1.4% 감소하였으나 보험대출금과 여신전문기관대출금이 각각 1.2%, 28.1% 증가하여 대출금이 1.1% 늘어남.
- 개인금융자산에서 개인부채를 차감한 개인 순금융자산은 2010년 말 대비 24조 3천억 원 증가한 1,263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, 2년 3개월 연속 증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.
- 개인금융자산 증가액이 개인부채 증가액의 약 3배에 달하면서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.33배로 개선되었으며, 이는 2007년 3/4분기 2.36배를 기록한 후 3년 6개월만에 최고치임.

(2011년 1/4분기 중 자금순환, 한은, 6/16)